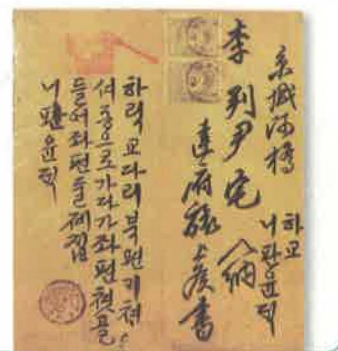


1

근대 문물의 유입으로 생활 양식이 변하다

오늘날과 같이 주소와 우편 번호 체계가 생기기 전 근대 우편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른쪽 대한 제국 시기의 편지 봉투를 보면, 당시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편지 봉투에서 우표와 소인을 확인할 수 있고, '하리고 다리 북편 개천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좌편 첫 골 들어 좌편 둘째 집 이판윤택'이라고 쓰인 상세한 주소를 볼 수 있다.

| 주제에 던지는 질문 | 개항 이후 들어온 새로운 문물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대한 제국 시기 편지 봉투(우정박물관)

근대 과학 기술의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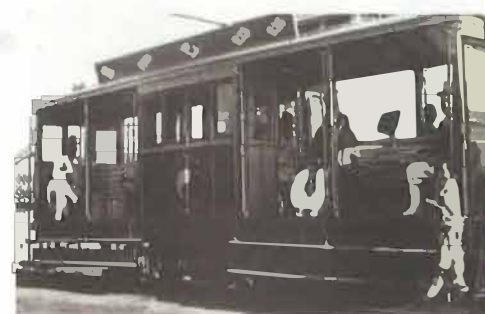
개항 이후 외국과의 교섭이 늘어나면서 전신·우편 사업이 도입되었다. 전신 사업은 일본이 나가사키와 부산 사이의 해저 전선을 개통한 것에서 시작하여 중국, 일본과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을 갖추었다. 초기에는 청과 일본이 전신 업무를 주도하였으나 조선 정부가 전보사를 설립하면서 전보사가 이를 맡았다. 우정총국을 설립하고 근대적 우편 제도를 실시하려 했으나 갑신정변 이후 중단되었다. 정부가 우체사를 설립하면서 우편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고, 1900년부터는 국제 우편 업무도 실시하였다. 전화는 경운궁에 최초로 설치하였으며 곧 시내 전화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무렵 전기 기술을 도입하면서 경복궁에 최초로 전등을 설치하였다. 이후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 사업을 주도하였다. 한성 전기 회사는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운행하고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철도는 열강의 이권 침탈 과정에서 부설되었다. 일본 자본에 의해 경인선(1899)이 개통된 이래 경부선(1905), 경의선(1906)이 개통되었다. 철도 부설 과정에서 많은 토지가 철도 부지로 편입되고 농민들이 공사에 동원되면서 민중의 저항도 있었다. 철도 부설로 유통망이 수운 중심에서 육로 중심으로 변하고, 물품의 빠른 수송과 지역 간 교류가 촉진되었다. 또한 요금만 내면 누구나 기차를 이용할 수 있어 신분 의식을 허무는 데 영향을 주었다.



초기 우체부의 모습(1890년대)



한성의 전차(1903) 전차의 중앙에는 요금이 비싼 특별석이 있었고, 그 좌우에는 일반석이 있었다.



③ 광혜원 초기 모습 미국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알렌의 제안으로 설립하였다.

서양 의료 기술의 도입 서양인 선교사에 의해 서양 의료 기술이 도입되었다. 1885년 조선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이후 제중원으로 개칭)^③을 설립하는 한편, 의학당을 세워 의료 인력을 양성하였다. 정부가 제중원 운영을 미국 선교사에게 맡긴 뒤 제중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편, 지식영은 중두법을 배워 실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중두 서적인 『우두신설』을 저술하였다. 그의 건의로 정부가 관립 의학교와 광제원을 설립하였는데, 광제원은 대한 의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④ 외무대신 집에서 서양식 만찬을 여는 모습을 재현한 그림(1888)

의식주의 변화 근대 문물의 수용과 함께 의식주 생활에 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는 의복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 이후 관리들의 공사예복을 두루마기로 통일하고 단발령과 함께 양복을 입어도 좋다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1900년 이후에는 고종의 복장이 서양식으로 바뀌었고, 문무관들도 서양식 예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의 옷차림에서는 개량 한복이 등장하였고, 외출 때 쓰던 장옷과 쓰개치마가 점차 사라졌다.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음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 있을 때 서양 요리를 접하였고, 환궁한 후에도 서양식 요리와 커피를 즐겼다. 관리들도 외국 외교관들과의 연회에 참석하면서 서양 음식^④에 점차 익숙해졌다. 이 시기에는 중국의 호떡·짬뽕 등이 들어왔고, 일본의 우동·어묵·초밥 등이 소개되었다.

주거에서는 신분에 따른 가옥 규모, 건축 자재, 장식 등의 제한이 점차 사라졌다. 한성과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국 공사관이나 은행, 병원, 성당, 교회 등이 서양·일본 건축 양식으로 세워졌다. 대표적인 건축물로 러시아 공사관, 영국 공사관, 명동 성당, 정동 교회, 덕수궁의 정관헌·석조전^⑤ 등이 있다.



⑤ 덕수궁 석조전의 외부(아래)와 내부(위)

역사 다가가기 양복과 단발 그리고 한복과 상투

1895년에 공포된 단발령은 의병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아관 파천 이후 폐지되었다. 그러나 단발과 양복은 개화파 관료를 중심으로 점차 유행하였다. 1907년경에는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으면 낮은 관념과 습관을 지닌 사람으로 보았고, 머리를 짧게 깎고 양복을 입으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보는 풍조가 나타났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에는 “한성과 지방의 경박한 자제들이 지리, 역사, 산술을 조금 배운 후 머리카락 깎고 양복이나 입은 후에는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들어가는 재주나 배운 듯이 망녕되이 높은 체한다. …… 당시 이름이 사방에 떨치는 선배와 대인을 대하더라도 거만하기 짝이 없어 그 상투를 가리켜 야만이라 하며 그 의관을 완고라 하다가 …… 그 높은 분이 머리카락 깎고 웃도 양복으로 바꾸매 …… 그때는 그 용모와 언사를 대하고 스스로 경애하는 마음이 생겨 전날 경박하고 거만한 태도가 없어지는지라.”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 양복 차림의 서광범(왼쪽)과 한복 차림의 김옥균(오른쪽)



근대 문물 수용과 그로 인한 변화

자료 ① 철도의 도입

• 화륜거(열차) 시간표

○ 파문 : 왕위 시간 평원 조로에 회를
온전 술은 시간은 화와 같다는데
연해서 풍으로 알다 미칠 오편 七시
여에서 유현 七시 六분 우각동
七시 十一분 부평 지리 三十三分 호수
七시 五十分 옥류동 八시 十五分 묘향
진 사사四十 분에 앞도 하고

경인 철도의 열차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
시에 떠나서 유현 7시 6분,
우각동 7시 11분, 부평 7시
36분, 소사 7시 50분, 오
류동 8시 15분, 노량진 8시
40분에 당도하고

- 독립신문, 1899. 9. 16.

- 경부 철도가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 남대
문을 등지고 떠나 나가서 / 빨리 부는 바
람의 형세 같으니 /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
고 / 우리 내외 외국인 같이 탔으나 / 내
외 친소 다같이 익혀 지내니 / 조그마한
따 세상 적로 이루어네.

- 최남선, 「경부 철도가」

- 철도 부설에 대한 부정적 기사

중간 장시나 역참이 있는 마을에는 화물이 풍부하지 않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데 어찌 20만 평을 쓰는가? 이는 일본인의 식민 계략이니, …… 나라가 정저장 40여 곳을 나열하고 영호남 천리의 한복판을 관통하게 한다면 …… 멸망에 이름이 반드시 미국의 인디언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 황성신문, 1901. 10. 7.

- 황성신문, 1901. 10. 7.

자료 2 서양 의료 기술의 수용

동양 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여기는 인식에 따라 해부를 금기시하였다. 반면, 서양 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보아 해부학이 빠르게 발달하였다. 한국에서는 1885년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제중원)이 설립되었다. 1906년에는 의학생 김필순과 의학교수 올리버 에비슨이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인 『해부학』을 발간하였다.

➡ 해부학 교과서(위)와 고종의 주치의였던 독일인 분수의 의료 도구(아래)



자료 ③ 전화의 설치

한국에서 전화를 도입하여 가장 먼저 설치한 곳은 경운궁(덕수궁)이었다. 당시 궁 안에서 고종의 전화를 받는 관리는 집무할 때 입는 옷인 사모관대를 갖추고 절을 올린 후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았다. 한편, 전화가 보급되면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 전화 교환소에는 통화 내용을 감찰하는 전어 감사가 배치되기도 하였다.

➡ 개화기 전화 교환수(위)와
전화(아래)



- 1 **자료①**을 토대로 철도 부설이 당시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써 보자.

서양 문물의 도입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 2 **자료②**를 읽고 서양 의료 기술의 도입으로 한국인의 신체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론해 보자.
- 3 자료를 토대로 당시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발표해 보자.



❑ 사진으로 보는 이주 동포의 삶



6 만주의 한인 이주민 초막



7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한인 가족



8 일본에서 조선 엿을 파는 유학생



9 일본에서 조선 엿을 파는 유학생



9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왼쪽)과 호놀룰루항에 입항한 '사진 신부'(오른쪽)



“할머니는 시집오기 전 한국에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행복했대요. 몇 날 며칠 배를 타고 할머니가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처음 할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너무 늙어 보이더라요. 할머니는 속이 상해 울었대요.”

- 「우리 가족의 역사」

국외로의 이주 증가 19세기 중엽부터 한국인들의 중국 이주가 본격화되었고, 1900년경에는 일본, 미주로도 이주해 갔다. 1860년대부터 한국인들은 기근, 빈곤, 수탈 등을 피해 만주⁶로 이주하여 한인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청의 관원과 토착인들의 핍박에서 벗어나고자 대한 제국 정부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관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정부는 1902년 이범윤을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하여 이주 동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에는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제가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여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자 항일 운동가들이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연해주⁷는 국내와 가까워 1860년대부터 한국인이 이주해 살았다. 이주 초반에는 연해주 지역의 관리가 한국인 이주민에게 우호적이었으나 점차 러시아인과 한국인 사이에 경작할 토지를 놓고 경쟁이 일어났다. 1910년 전후 일본의 탄압을 피해 이주해 온 한국인과 해외에 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애국지사들이 다수 망명하면서 연해주에는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한국인의 일본⁸ 이주는 1910년 이전에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도 많지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일본이 호황을 맞으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이민이 늘어났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은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와 규슈, 홋카이도 등 탄광 소재지에 많이 거주하였다.

미주⁹로의 이주는 1903년 백여 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1905년까지 7천여 명의 노동자가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독신 남성이었던 이들 대부분은 한국인 신부를 구하고자 하였다. 천여 명의 한국인 여성이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방식으로 하와이로 건너갔는데, 이들을 ‘사진 신부’라고 하였다. 이주한 한국인들은 미국 서부 지역으로 재이주하기도 하였다.

문학·예술의 변화

서양 근대 문물의 수용은 문학과 예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문학에서는 박은식의 『서사전국지』,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등 역사·전기 소설과 현실을 풍자하는 박은식의 『몽배금태조』,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이전과는 다른 문학 형태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같은 신

체시가 나왔고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화의 혈』, 『자유종』과 같은 신교육과 계급 타파 등 문명개화를 주제로 한 신소설이 등장하였다.

음악^⑩에서는 서양식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창가**가 유행하였고, 1901년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군악대가 설치되었다.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일본 노래들을 번역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한국인들은 민요 형식을 빌린 의병 창 의가, 용병가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한 사람이 부르던 판소리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부르는 **창극**도 유행하였다. 미술 분야에서는 서양 화풍이 도입되어 유화가 그려졌고, 연극 분야에서는 현대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은세계」와 같은 작품이 공연되었다.

종교계의 변화

개항 이후 유교계와 불교계에서는 혁신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박은식은 유교구신론^⑪을 통해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예속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한용운은 『조선불교구신론』을 써서 개혁을 주장하고 박한영 등과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동학은 간부 이용구 등이 일진회를 만들자 손병희가 이들을 몰아내고 1905년 천도교로 개칭하였다. 천도교는 여러 학교를 설립하고, 기관지 『만세보』를 발행하였다. 나철, 오기호 등은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1909년 대중교를 창시하고 만주 지역으로 포교를 확대하였다.

한편, 천주교는 프랑스와의 수교로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은 이후 소학교, 고아원, 양로원 등을 세웠으며, 경향신문을 발행하였다. 개신교는 미국과의 수교 이후 선교의 일환으로 병원을 세워 환자 치료와 의사 양성에 힘썼다. 또한 이화 학당, 숭실 학교 등을 설립하여 교육에 힘쓰고, 여성 교육과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

역사

다가가기 『금수회의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금수회의록』은 안국선이 1908년에 지은 소설이다. 이 소설은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이들의 입을 빌려 인간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풍자하였다. 소설 속 화자는 꿈속에서 동물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동물들은 각자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을 토론하였다. 여우는 큰 나라나 힘센 자에게 기대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개구리는 사람들이 좁은 소견으로 외국의 형편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썩은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였다. 까마귀는 인간의 불효를 비난하고, 벌은 서로 미워하고 속이는 인간들을 비난하였다. 이러하듯 소설에서는 개화 무렵의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외국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빼앗는 외국을 규탄함으로써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았다. **⑩ 금수회의록**



⑩ 미국인 선교사 험버트가 채록한 「아리랑」 악보

⑪ 유교구신론 박은식은 새로운 시대에 유교를 전승·보급하기 위해서는 교화 활동과 실천적인 유교 정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